

## 문익환 옥중서신의 특성과 활용

The Characteristics and Use of Moon Ik-Hwan's Prison Letters

오명진(Oh, Myung Jin)\*

1. 머리말
2. 옥중서신의 생산배경
  - 1) 개인의 삶과 감옥
  - 2) 『행형법』과 서신의 생산과 검열
3. 옥중서신의 특징
  - 1) 범위와 규모
  - 2) 작성 목적과 수신자
  - 3) 사본의 생산과 유통
  - 4) 작성 매체로서 봉함엽서
4. 옥중서신의 온라인 서비스
  - 1) 활용 현황과 시사점
  - 2) 온라인 서비스의 과제
5. 맺음말

\* 사단법인 통일의 집 아키비스트(doyekinme@gmail.com).

■ 투고일: 2020년 09월 1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10월 05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기록학연구 66, 317-355,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6.317>

## 〈초록〉

문익환 옥중서신은 사단법인 통일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현대 한국의 단면을 품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편지들은 약 10년 3개월 동안 작성된 것으로 현재 약 800여통이 남겨져 있으며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단편적으로 전해졌던 옥중서신의 현황을 소개하고 옥중서신이 갖는 기록관리대상으로서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에 근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옥중서신의 생산배경으로서 개인의 삶과 감옥 생활의 맥락을 분석하였으며 옥중서신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범위와 규모, 서신의 수신자, 재생산과 유통과정 그리고, 봉합엽서라는 작성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 아카이브에서 활용의 의미를 제고하고 개인 기록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편지의 특성에 기반한 온라인 활용의 과제와 전략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개인 기록, 옥중서신의 특징, 온라인 활용, 문익환 통일의 집**

## 〈Abstract〉

Moon Ik-hwan's prison letters are valuable historical materials managed by the Moon Ik-hwan House of Unification, reflecting an aspect of modern and contemporary South Korea. He wrote these prison letters during a period of approximately 11 years and three months. Today about 800 of them remain and are in an urgent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ir long-term preservation and Use. This study set out to introduce their current state that had been made to the public only in fragments,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as objects of records management, and propose directions and strategies to provide them as part of online service.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analyzed Moon's personal life and life in prison as the backgrounds of their creation and examine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s prison letters according to the scope and size, recipients, reproduction and circulation

process, and the medium of lettercards. Based on these efforts, the study shed new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use in private archives and provided a case of online utilization task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etters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s of personal records.

**Keywords** : Personal records, characteristics of prison letters, Moon Ik-hwan House of Unification

## 1. 머리말

역사란 우리 자신을 맑은 물줄기로 경험, 확인하는 일이고, 이어받은 과제를 이룩해가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란 결코 지난날의 일들을 찾아내는 지적인 작업에 멎는 것이 아니죠. 역사란 지난날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루어다가 채 못 이룬 일을 이어 그 과제를 이룩해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익환 1981. 4. 6)

옥중 서신은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를 말한다. 신약성경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바울은 편지의 형태로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가 쓴 네 개의 편지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은 수용자<sup>1)</sup>인 개인이 쓴 편지이다. 정치적으로 엄혹한 시절을 건너왔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을 거쳐갔고 옥중 편지들이 쓰여졌다. 대표적으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8년간 옥살이를 하였던 신영복 선생의 편지는 책으로 나와 대중에게 널리 소개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널리 읽혀지는 편지가 되었다.<sup>2)</sup> 김대중 대

---

1) 수용자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통령의 옥중서신도 유명한데 서울대 병원 시절 썼던 편지는 당국의 심한 감시와 통제의 상황 속에서 몰래 못으로 눌러 편지를 써야만 했던 시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sup>3)</sup> 이 옥중서신들은 개인의 사적 감정의 편린을 담은 것을 넘어 깊은 사색과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귀중한 사료이다.

수유리에 있는 문익환 통일의 집은 작은 빨간 벽돌집으로 상공부 주택으로 건립되었고 늦봄, 문익환 목사와 가족들이 1970년부터 살던 집이다. 1994년 문익환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 박용길은 ‘통일의 집’이라는 현판을 써 붙이고 집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집은 문익환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성금으로 복원하여 2018년 6월 1일 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sup>4)</sup> 통일의 집이 이렇게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통일의 집에 문익환과 박용길이 생산, 축적해놓은 다량의 근현대사 사료들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익환은 목회자, 교수, 시인, 민주화운동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시, 설교, 성명서, 연설문, 학술논문,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기록화된 흔적들을 남겼다.<sup>5)</sup>

문익환의 옥중서신은 그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수감되어 썼던 편지들로 첫 번째 옥에 갇히게 되었던 1976년의 민주구국사건부터 민주 열사 장례위원장을 맡아 재구속되었던 1993년까지에 걸쳐서 작성된 것이다. 이 편지들은 작성된 기간이 긴 만큼 남겨진 양도 상당하며 특히 목회자, 교수 시

2) 신영복. 1988.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서울: 햇빛출판사; 신영복. 1993. 『엽서』. 서울: 너른마당.

3) 김대중. 2009. 『옥중서신: 편지로 새긴 사랑, 자유, 민주주의. 1, 김대중이 이희호에게』. 서울: 시대의 창; 김대중. 2009. 『옥중서신: 편지로 새긴 사랑, 자유, 민주주의. 2, 이희호가 김대중에게』. 서울: 시대의 창.

4) 문익환 통일의집에 붙여 있는 안내문의 내용. 통일의 집 박물관은 사단법인 통일의 집에서 운영하는 미등록 사설 박물관으로 서울시 미래유산(2013-098)으로 지정되어 있다.

5) 통일의 집 사료의 전체적인 현황은 2만 5,000여점이 넘는 정도라고 뉴스(경향신문, 2018. 5. 27. “절차적 통일보다 우리 마음속 통일 앞서야”)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지만 통일의 집이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보존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절부터 많은 글을 써오던 그가 맘대로 글을 쓸 수 없었던 시기에 썼던 특별한 글이기도 하다. 문익환은 일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마지막 18년 중 10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 있었고 세상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의 편지 속에는 개인적인 안부와 회고, 감상과 활동이 담겨있지만 이것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사회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의 시선을 통해 격변했던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문익환이 쓴 마지막 옥중서신이 작성된 지도 삼십 년에 가깝다.<sup>6)</sup> 그간 문익환 옥중서신의 존재와 내용은 여러 지면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다양한 간행물로 재탄생했다. 일정 기간별 서신을 묶어서 나온 단행본만 여섯 권이고 문익환 사후에는 주로 서신의 내용을 편집하여 재구성하거나 특정 구절, 문단 등을 해석하여 소개한 책들이 간행되었다.<sup>7)</sup> 그러나 활발했던 옥중서신 간행 활동에 비하면 옥중서신의 관리와 보존의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sup>8)</sup> 게다가 옥중서신들은 이미 생산된 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어 원본 사료들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중서신에 대한 다양한 활용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보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문익환 옥중서신은

6) 1993. 3. 4.(제 411신)이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로 문익환은 이를 뒤인 3월 6일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

7) 문익환의 옥중 서신집. 문익환, 1984, 『꿈이오는 새벽녘』, 서울, 춘추사; 문익환, 1989, 『통일을 비는 마음』, 서울, 세계사; 문익환, 1991,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서울, 삼민사; 문익환, 1994, 『목매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놓으며』, 서울, 사계절; 문익환, 1994, 『더욱 짧게』, 서울, 사계절. 또한, 문익환 사후에도 여러 책이나 잡지에 그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익환, 2003, 『청소년이 읽는 우리수필 2. 문익환』, 서울, 돌베개;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엮음, 2019, 『장준하, 문익환 다시 읽기』,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잡지에 소개된 대표적인 옥중서신으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살림』에 1991년 9월호부터 1993년 3월호까지 문익환의 옥중서신이 연재되었고 문익환, 1992, “문익환 목사의 옥중서신”. 한국기독교와 역사(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43-159에는 육필원고의 형태로 실려있다.

8) 이와 관련해서는 4.1 옥중서신의 활용현황과 시사점 부분에서 다룬다.

주로 오프라인 사본 제공과 편집된 간행물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사료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옥중서신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과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문익환 옥중서신이 가지는 기록관리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옥중서신의 생산배경으로서 개인의 삶과 사회적, 구조적 배경인 감옥 생활을 둘러싼 맥락을 분석하였다. 특히, 수용자에 관한 형 집행과 처우를 담고 있는 『행형법』(법 제 105호)에 주목하여 감옥 규정이 서신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어 사단법인 통일의 집의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옥중서신의 잔존 현황을 소개하고 이 편지들이 일반적인 사적 편지가 갖는 일반적 특성에서 나아가 문익환 옥중서신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을 생산, 유통, 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서신의 수신자 특성, 서신의 재생산과 유통과정의 특성 그리고, 봉함엽서라는 작성 매체의 특성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익환 옥중서신의 현황과 관리대상의 특성에 기반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과제를 제안하였다.

## 2. 옥중서신의 생산배경

### 1) 개인의 삶과 감옥

개인 기록은 공적 기록에는 남겨질 수 없는 다양한 개인의 관점이 담겨질 수 있기에 역사를 풍부하게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겨진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록관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up>9)</sup>

일반적인 공적 기록이 법규와 업무 맥락 속에서 생산되지만 개인 기록은 특별한 생산동기 보다는 다만 자신의 필요나 편애와 같은 이유로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Hobbs 2010). Hobbs는 개인 필터(personal filter)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특성이 개인 나름의 고유성을 띠면서 개인 고유의 독특한 사회상이 그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Hobbs 2010). 하지만 기록 속에 남겨진 개인 고유의 독특함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일까. 이는 분명히 법규와 업무에 관한 이해와 분석 속에서 파악된 공적 기록의 맥락과는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기록은 기록의 생산, 관리 이력에 관한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록에 관한 맥락은 무엇보다도 기록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가능한 기록관리의 과정에서 풍부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인 개인의 삶과 개인적 특성, 내·외적 환경이라는 관계 속에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오명진 2017, 85-90).

개인의 서신은 개인 기록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서 아카이브의 주요한 관리대상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사적 편지와는 다르게 문익환의 옥중 편지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생산되었다. 이 편지에는 감옥 안의 일상과 활동, 문익환의 민주화, 통일, 평화에 관한 철학과 사상, 감옥 밖으로 보내는 안부와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문익환의 옥중편지의 생산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인의 삶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개인의 사상과 활동,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sup>10)</sup>

---

9) 개인에 관한 연구로서 인물연구는 역사연구의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인물연구는 쉽지 않은 주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객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물 연구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는 나오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의 부족은 중요한 이유가 된다(박태균 2018, 27).

문익환은 1918년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다.<sup>11)</sup> 목회자이자 신학 교수, 시인이기도 하였던 문익환의 삶은 1976년 3월 이후 큰 변화를 맞았고 여기에는 “3.1 민주구국선언사건”,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세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다.<sup>12)</sup> 그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 통일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삶에서 감옥 생활은 바로 이 사건들에서 비롯된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1976년 3월 2일에 처음으로 서대문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문익환이 겪은 여섯 차례의 구속과 수감생활은 12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문익환 옥중서신의 직접적 배경으로서 1976년 이후의 그의 삶을 여섯 차례의 투옥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문익환의 첫 번째 감옥 생활은 3.1 민주구국선언사건<sup>14)</sup>에서 『3.1민주

- 10) 문익환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중에서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평전과 신학대학의 학위논문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외하고는 문익환 연구는 주로 그의 통일운동을 방북과 4·2공동성명 등 그의 방북사건에만 한정해 이해하는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이유나 2014, 7). 이와 관련해 문익환 연구자인 이유나는 문익환의 통일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삶 즉, 성장배경, 영향을 미친 사건과 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문익환의 성장 배경인 가족환경과 지리적 환경, 학업과 스승 및 교우관계, 1950-70년대에 개신교의 통일론,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통련 단체 내에서의 위상과 관계, 범민련 활동 등에 주목하였다(이유나 2014, 8).
- 11) 문익환은 명동학교, 은진중학교, 평양 숭실학교에 다녔으며 이후 도쿄의 일본신학교, 한국신학대학,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1955년부터 한빛교회 목사와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일하였다. 1968년부터 신구교 공동 구약번역사업의 책임위원으로 성서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문을 쓰고 구속된 이후로 18년 동안 여섯 차례, 11년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교정에 세워진 문익환 목사의 기념비 참조)
- 12) 그가 장준하의 죽음 이후 58세에 신학자이자 성경번역가에서 재야운동에 나서게 되면서 표면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1970년 전태일이 죽은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김형수, 2014)는 주장도 있다.
- 13) 이 내용은 김형수가 쓴 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유나(2014), 이문영, 한승헌, 이해동 외(2000), 문익환(1990), 통일의 집 보유 각종 기록물을 토대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국선언 성명서』를 작성한 혐의로 시작되었다. 이 성명서는 일본의 경제침략, 차관경제의 부조리, 노동자의 노동 3권 회복, 유신 철폐와 민주회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유명 정당인, 교수 등 20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익환은 5년 형을 언도 받았다. 이듬해 유월, 전주 교도소에서 죽을 결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옥중 단식’을 시작하였으나 21일 만에 중단하였고 22개월간의 복역 기간을 보낸 뒤 1977년 12월 31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듬해인 1978년 시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면서 그는 재수감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감옥 생활은 15개월간 이어졌으며 10. 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대통령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1979년 12월 7일에 석방되었다.

세 번째 감옥 생활은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sup>15)</sup>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의 측근 및 재야 인사 등 연루자들은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문익환은 1980년 5월 17일 밤에 체포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단절된 가운데 안기부에서 55일간 혹독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육군교도소로 송치된 후에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비공개로 군사재판을 받았다(이문영, 한승헌, 이해동 외 2000).<sup>16)</sup> 문익환은 이 재판에서 내란음모죄로 20년을 구형받고 공주, 안양

14) 1976년 3월 10일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입건한다고 발표했다(김형수, 문익환 평전, 380쪽).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윤보선·김대중·정일형·함석헌·윤반용·문익환·함세웅·신현봉·김승훈·이문영·서남동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6, 304).

15)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킨 주모자로 지목하고, 재야인사 20여 명과 함께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을 말한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자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후 2001년과 2003년에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을 옮겨 다니면서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네 번째 감옥 생활은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이었던 문익환이 서울대에서 한 강연을 두고 대중을 선동한 죄로 지명수배되고 이어진 대구 계명대학교 강연 이후 자진 출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문익환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1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와 청주, 진주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이후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 29 민주화 선언”으로 사회의 흐름이 바뀌면서 시국사범들이 하나둘 풀려났고 문익환도 87년 7월 8일 정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하게 된다.

다섯 번째 감옥 생활은 당시 TV 등 매체의 보도로 대중들에게 크게 각인되었던 문익환목사 방북사건<sup>17)</sup> 때문이었다. 그의 방북은 1989년 신년, 김일성의 초청으로 시작되어 정경모, 유원호와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3일에 걸쳐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문익환은 8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담과 공동 명의로 「4·2 남북공동성명」<sup>18)</sup>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문익환은 베이징과 도쿄를 거쳐 김포로 입국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sup>19)</sup> 그의 방북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

16) 당시 아내들이 중심이 된 구속자 가족들의 활약이 컸는데 형사들은 박용길(문익환), 김석중(이문영), 이종욱(이해동) 등 아내들에게 도봉산 1, 2, 3호라 암호명을 붙이고 감시를 하였다.

17)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이 탄압받고 각계의 남북교류 제의가 거부되는 등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1989년 3월 25일 문익환·정경모·유원호 일행의 방북이 결행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6, 537).

18) 4·2 공동성명은 남북이 공존의 원칙에서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점진적 연방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도 영향을 주어 ‘느슨한 연방제’로 바뀌게 하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어지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이유나 2019, p.56).

19) 문익환이 방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결정적 동기에 관해서는 후에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기, “나는 왜 평양을 갔나”와 방북재판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왜 방북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고 북한으로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점, 김일성과의 회담 등에 관해서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며 이 사건으로 문익환은 칠십이 넘는 나이에 수감되어 19개월간 감옥에 있어야 했다.

어느 때보다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문익환은 출감하자마자 곧 바로 방북 보고 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통일운동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유월, 문익환은 학생들의 분신 정국에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일로 인해 형집행정지가 취소되면서 재수감되었다. 또다시 이어진 21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은 1993년 3월 6일 가석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다. 18년 동안 여섯 차례, 11년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다.

목회자이자 교수, 성경학자였던 그가 민주화와 통일 운동가로서 삶의 방향을 세운 시점이 그의 나이 58세였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는 그때로부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 긴 시간을 감옥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고 이해된다. 그는 편지에서는 이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첫 번 감옥 생활에서 기쁨을 인생의 본질, 우주의 뜻이라고 깨닫기는 했는데, 나의 마음은 끝내 '기쁨의 신학'을 발전시킬 심정이 되지 않았던 거요. 그러다가 두 번째 감옥에 가면서 나는 '눈물'을 주제로 하는 연작시를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이번에는 '슬픔'의 깊이를 언뜻 들여다보게 되었구려. 그것은 정말 순간이었소. 그러나 그 순간은 나를 아주 돌려세우는 순간이었소. (문익환 1980. 11. 22)

여기야말로 이 민족의 모든 부조리가 모이고 쌓이고 비벼대며 아우성치는 곳 아닙니까? 세상은 이 사회의 치부라고도 하구요. 가장 썩어 있는 곳이라고도 하구요. 그러나 새살은 바로 이 밑바닥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느님은 또다시 저를 처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

(문익환. 1989. 『나는 왜 평양을 갔나』. 서울. 삼민기획; 문익환. 1999. 『문익환 전집 : 5권』. 파주. 세계절)

좀 귀퉁한 냄새를 맡으며 또 얼마를 여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픔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느님은 저를 쓰려고 이렇게 또다시 민족사의 대학원 제4학기에 보내 주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문익환 1986. 6. 9)

감옥 생활에 대한 문익환의 편지 구절들은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건너서 평화와 행복의 시간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문익환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난 인생을 헛살 뻔했다. 예수를 헛믿을 뻔했다 (문익환 92. 3. 7)”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문익환의 평전을 쓴 작가는 “감옥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확장시켜준 곳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종교적 세계관이 커져가는 경로는 그가 쓴 숭한 옥중서신들에 새겨져 있다”(김형수 2018, 480)고 평가하고 있다.

〈표 1〉 문익환 목사의 감옥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6. 3. 2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li> <li>• 1977. 6 전주교도소에서 21일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옥중 단식’</li> <li>• 1977.12.31. 22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li> <li>• 1978.10.13. 유신헌법 비민주성을 밝힌 성명사건으로 형집행정지 취소되어 재수감</li> <li>• 1979.12.14. 15개월 복역 후 석방</li> <li>• 1980. 5.17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에 연루되어 ‘내란예비음모죄’로 구속</li> <li>• 1981. 9 공주 교도소에서 24일간 김대중의 처우개선과 생명의 안전 보장을 위한 옥중 단식</li> <li>• 1982.12. 8. 32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li> <li>• 1986. 5. 서울대·계명대에서 한 강연이 선동죄로 지명수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li> <li>• 1987. 7. 8. 14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li> <li>• 1989. 4.13 「방북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li> <li>• 1990.10.20. 19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li> <li>• 1991. 6. 6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들의 장례위원장 등의 활동으로 형집행정지 취소로 재수감</li> <li>• 1993. 3. 6. 21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li> </ul>
---

## 2) 『행형법』과 서신의 생산과 검열

감옥에서 외부로 나가는 편지들은 근본적으로 당국의 엄중한 감시와 규제 속에서 작성된다. 또한 검열 대상으로 검열에 통과하지 못하면 압수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후가 필요했다. 물론 갖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열로 압수되거나 검게 칠해져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 또한 다반사였다. 문익환이 감옥에 있었던 1976-1993년의 18년간 적용되었던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익환 서신의 생산과 검열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용자에 관한 형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은 1950년에 『행형법』(법 제 105호)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 12월부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서신과 관련한 조항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법에서는 접견과 서신을 묶어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sup>20)</sup> 즉, 수형자는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되, 친족 이외의 경우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두었고 접견과 서신 수발에 “형무 관리의 입회 또는 검열”을 명시하고 있었다(행형법 제 17조). 이 법은 1973년도에 개정되었으나 “형무 관리”가 “교도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정도에 머물렀다. 한편, 시행령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데 바로 서신의 횟수를 제한하고 검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류는 “10일에 1통”, 징역은 “1월에 1통”이었으며 교도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

20)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제 1조)으로 하며 형무소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제 2조).

신은 “봉합하지 않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여 검열을 당연시하였으며 한편으로 수형자가 수령하는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도록 하였다. 즉, 수신된 서신의 봉투를 열어 그 내용을 검열하였음을 서신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감옥으로 보내진 많은 서신 등 자료들에 빨간색 검인 도장이 찍혀있게 된 이유이다. 또한 법에는 “수형자의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은 그 수발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상, 행형법 시행령 제 61조-63조)

이러한 규정은 1995년도 행형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서신 발송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집행법에서는 보다 폭 넓은 서신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데 편지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열받지 아니하며(형집행법 제 43조 1항, 4항) 또한,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합하여 교정 시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 64조, 65조).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문익환이 옥중 서신을 쓰기 위해 처했던 당국의 규정은 매우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와의 접견이 극히 한정된 가운데 쓸 수 있는 서신의 수마저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다만 법령에는 “소장의 권한과 재량”을 두도록 하여 그러한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서신 회수가 증가될 수 있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 61조 1, 2항).<sup>21)</sup>

접견 과장님 특별 배려로 부랴부랴 붓을 들었소. 모처럼 견우 직녀 처럼 만나는 날, 그것도 당신의 환갑날 접견 뒤가 흐려서 미안, 미안. 환갑 잔치는 내가 나갈 때까지로 미루고, 그때까지는 나이 먹는 걸 중

21) 소장의 권한과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행정성적이 우량한 수용자의 경우거나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해당된다. 아마도 이것이 문익환이 4차 감옥 이후 서신을 자주 쓸 수 있었던 근거일 것으로 짐작된다.

단하고 있으시오. 그때까지 신아홉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문익환 1979. 9. 1)

한편, 감옥 규정은 서신의 작성 횟수뿐 아니라 내용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작성된 서신은 검열이라는 단계를 거친 후에 발송되면서 서신의 내용에도 영향을 주었다.<sup>22)</sup> 이러한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급적 검열로 훼손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서신 내용을 작성할 때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문익환은 사라지는 편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편지마다 번호를 붙였다.<sup>23)</sup> 문익환이 쓴 옥중서신에는 다섯 번째 감옥시절부터 서신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다섯 번째 감옥시절에는 1신-216신까지, 여섯 번째 감옥에서는 1신-411신까지 편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렇게 매일 날짜와 번호를 쓴 것은 잃어버리거나 후시라도 편지가 검열에 걸려 못 받게 될까봐서였다. 덕분에 우리들은 편지들을 순서대로 읽으며 그 변천사와 사람들의 근황과 생각의 흐름,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문영금 2019)

또한, 내용을 적을 때도 검열을 의식하여 표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면서 자체검열을 하였고 때로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그들만의 암호 표현도 자주 사용했다.

편지에는 중요한 인물들과 장소들은 나오지 않았다. 흡사 암호문을 읽는 것 같았다. 가령 김근태는 병민이 아빠, 감옥에서 도움을 주었던

---

22) 이는 외부로부터 받는 서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옥중으로 전달된 서신들은 검인 도장이 찍힌 것들이었으며 종종 압수도 이루어졌다.

23) 이 방법은 감옥에 있는 문익환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3,000여통에 달하는 편지를 보냈던 그의 부인 박용길이가 먼저 사용하였다.

교도관 부부를 조카로 표현했고 인권위원회 사무실과 유가협은 종로 5가, 창신동으로 적혀있었다. 다른 가족들 편지에는 까만 줄로 그어져 있는 편지도 많았는데 두 분은 자체검열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두 분만 아는 암호로 피해 가셨던 것이다.(문영금 2019)

한편, 문익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만의 깨우침을 찾고 있었다. 1986년 6월 20일 편지에서 그는 검열에 안 걸릴 말을 찾으면서 알게 된 평범한 말들의 소중한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7월 30일 편지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살면서 잃어버렸던 습성을 다시 찾게 된 기쁨을 편지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밖에 있을 때는 검열에 걸릴 말만 하다 여기 들어와서 검열에 안 걸릴 말만 골라 쓰다 보니 어라, 이걸 정말 소중한 걸 찾은 셈이네요. 검열에 안 걸릴 소리, 그건 평범한 소리 ...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그 정도의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평범한 소리(문익환 1986. 6. 20)

일기를 쓰는 일도, 편지를 쓰는 일도 일본인들의 변뜩이는 눈에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10대에 이미 포기해 버린 생활 습성인데, 이제 나의 생애, 날마다 이만큼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습성이 이 나이에라도 다시 생겼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겠지요. (문익환 1986. 7. 3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을 완벽히 피하지는 못했는데 엽서는 부분적으로 검게 칠해지기도 했으며 검열에 걸려 압수당했다가 문익환이 출감할 때 들고 나온 서신들도 있었다. <그림 1>은 1979년 11월 16일자 옥중 서신으로 검열로 한쪽 부분이 전부 검게 그어지고 뒷면에도 그 자국이 선연하다.

〈그림 1〉 1979. 11. 16. 옥중서신



출처 : 사단법인 통일의 집

이러한 서신의 작성배경은 문익환 옥중편지가 개인의 사적 편지라는 특성을 넘어 한국의 민주화 활동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의 여섯차례에 걸친 감옥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집합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익환 개인의 사적 편지지만 공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은 옥중서신 전반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서신을 관리, 활용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3. 옥중서신의 특징

#### 1) 범위와 규모

일반적으로 편지란 수신자와 발신자간에 주고 받은 것으로 주로 수신자

가 소유하게 된다. 문익환이 쓴 옥중 편지들은 거의 전부가 가족들에게 보내졌고 이것은 아내인 박용길 장로가 가지고 있다가 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위탁했던 것을 사단법인 통일의 집이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익환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와 함께 감옥에서 압수되어 발송되지 못한 것을 문익환이 출옥할 때 가지고 나온 즉,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통일의 집에는 부분적으로 결실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감 시기별 옥중서신이 남겨져 있다.<sup>24)</sup> 문익환 통일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중서신의 현황을 구속된 차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은데 수감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편지들은 한 달에 한 통씩 혹은 여건이 허락될 때는 더 많은 수가 옥중에서 보내졌다.

<표 2> 구속 차수별 서신작성 현황

구분	수감 기간	수감 장소	서신 건수
1차	1976. 3. 2. -1977. 12. 31	서대문, 전주	9
2차	1978. 10. 13 - 1979. 12. 14	서대문, 안영	13
3차	1980. 5. 17 - 1982. 12. 24	육군 남한산성, 서대문, 공주, 안양	33
4차	1986. 5. 20 - 1987. 7. 8	서울, 청주, 진주	139
5차	1989. 4. 13 - 1990. 10. 20	안양, 전주	212
6차	1991. 6.6 - 1993. 3.6	영등포, 안동	402
합계			808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의 숫자는 구속 수감된 차수가 증가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투옥 기간인 123개월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월별로 약 6.7통의 서신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감옥 시기에는 편지들이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작성되었다.

24) 부분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편지는 대표적으로 전집 5권 2부에 회고록 형태로 실려있는 1992.2.12.-3.25 기간 중 작성된 옥중 서신(129신-164신)이다.

초기 감옥시절은 작성된 편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 외에도 수감 후 첫 편지를 보낸 시점이 늦다는 특징도 확인된다. 특히, 첫 번째 감옥 시기의 편지는 단 9통뿐으로 수감 기간이 22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적은 양이다. 또 첫 번째 감옥에서 첫 번째 편지를 쓴 시점이 감옥에 수감 된 지 45일 만으로 상당히 늦다.<sup>25)</sup> 이에 비하면 두 번째 감옥에서 쓴 편지는 13통으로 수감 기간인 15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통이 남겨져 있다. 하지만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세 번째 감옥 역시 첫 번째 감옥처럼 구속된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1980. 11. 22.)에 첫 번째 편지가 보내졌고 한 달에 한 통 정도가 작성되었다.<sup>26)</sup>

상대적으로 서신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은 네 번째 감옥 이후로 보이며 이때부터 서신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27)</sup> 특히 네 번째 감옥은 이전 수감 기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서신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총 14개월 동안 쓴 총 139통의 서신이 남겨져 있으며 수신인도 다양하게 가족, 친지(동생, 삼촌, 고모, 며느리, 조카 등)들로 확대되었다. 이후 다섯 번째 감옥에서는 사흘에 한번, 여섯 번째 감옥에서는 이틀에 한번 이상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수감 기간 중 가장 많은 편지가 남아 있는 기간은 여섯 번째 감옥 기간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칠십여통을 제외하고도 총 408통의 편지가 남아있다.

문익환의 옥중서신은 수감 기간 전체 중에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편지들은 간헐적으로 여러 수신자들과 오간 개별적인 편지라기보다

25) 이 편지는 “정말 정말 보고픈 당신께”로 시작되는데 건강과 수감생활에 대한 얘기와 아내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총 5장의 편지 중 중간 두 장이 분실되었다. 첫 번째 감옥에서 쓴 두 번째 편지로 파악되는 것은 첫 편지가 작성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1977년 4월 16일자이다.

26) 당시 문익환을 비롯한 연루자들은 초기에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었다가 육군교도소로 송치된 이후에야 면회가 허락될만큼 엄혹한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낼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시간들로 짐작된다.

27) 서신의 숫자가 증가한 이유에 관해서는 각주 21 참조

는 비교적 지속적이며 대상별로 내용별로 숙성된 집필 활동의 결과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문익환 옥중서신은 일반적인 개인 기록물로서 편지가 수신자, 발신자 등의 맥락과 함께 건 단위로 관리되는 것과는 달리 일련의 묶음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신의 집합과 집합에 포함되는 일련의 서신들을 식별하고 그 배경이 되는 정보 즉, 여섯 차례의 구속 배경인 감옥에 가게 된 경위나 관련 사건, 인물과 단체, 사회적 분위기, 수감 기간 등에 관한 이해를 축적하여 관리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편지들 간에도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는 문익환이 편지를 작성한 목적과 수신자를 통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2) 작성 목적과 수신자

문익환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거의 전부 가족들에게 보내졌다.<sup>28)</sup>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옥중서신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일 뿐 아니라 그의 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개인, 단체들과 교류하고자 작성된 서신이다. 이 글에는 이를 ‘대표수신자’와 ‘세부수신자’로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대표 수신자’란 편지의 수신인 란에 적힌 인물로 통상적인 수신자를 의미한다. 옥중서신의 ‘대표 수신자’는 모두 가족으로 그 중 아홉 명에게 보내진 편지가 전체의 약 97%(678통)에 해당한다.<sup>29)</sup> 아홉 명의 대표수신자별 수신 횟수를 살펴보면 아내인 박용길(522통), 어머니 김신묵(37통), 첫 손자 문바우(40통), 장남 문호근(23통) 순으로 많은 수의 편지가 보내졌다.

---

28) 수신자로 등장하는 가족만 23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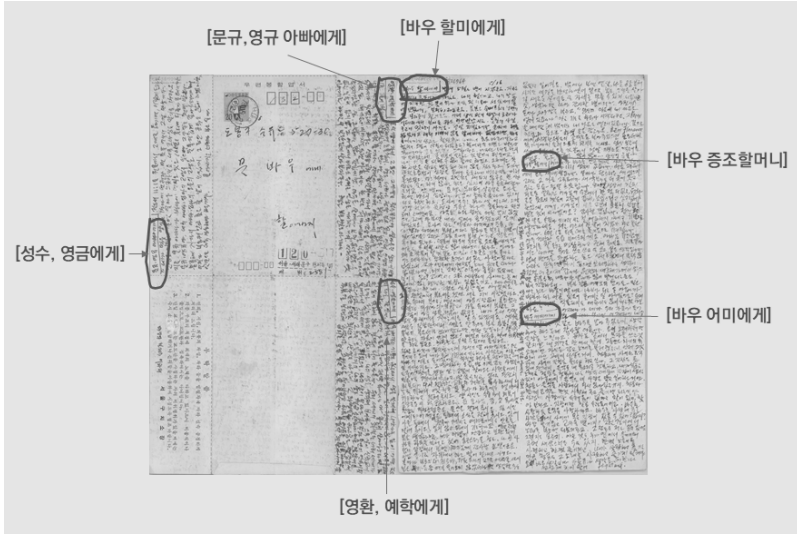
29) 어머니 김신묵과 아내 박용길, 아우인 문동환, 자식인 문호근, 문영금, 문성근, 며느리 정은숙, 손자 손녀인 문바우와 문보라이다.

‘대표 수신자’별 수신현황은 감옥 시기별로 차이가 관찰된다. 우선 첫 번째 감옥 시기에는 수신자가 모두 아내인 박용길 장로이며 두 번째 감옥 이후 다양한 가족들로 늘어났다가 다섯 번째 감옥 이후로 다시 박용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옥(1978.10~1979.12)에서 쓴 편지의 수신자는 박용길 외에도 문바우가 자주 등장한다. 문바우는 늦봄의 첫 손자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자가 편지를 읽을 수도 없었을 터임에도 수신자로 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세 번째 감옥(1980.5~1982.12)의 서신의 수신자는 문바우(15통), 박용길(3통) 외에 역시 갓 태어난 손녀인 문보라를 수신자로 하는 편지(15통)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 수신자로서 문바우, 문보라의 존재는 이 편지가 특정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에게 보내진 편지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신의 수가 급격하게 느는 시기인 네 번째 감옥(1986.5~1987.7)부터는 늘어난 서신 수 만큼 가족의 범위도 확장되고 수신인도 다양해졌는데 직계 가족 뿐 아니라 일가친지(동생, 삼촌, 고모, 며느리, 조카 등)들로 수신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신자 외에 옥중편지는 다수의 ‘세부 수신자’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감옥은 외부의 접견과 서신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으로 그 안에서 편지를 쓰는 것은 문익환에게 매우 중요한 일상이었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 통로였다. 이에 문익환은 한 장의 편지에 여러 명에게 보내는 사연을 담곤 했다. 1979. 5. 16. 일자 서신〈그림 2〉은 두 번째 수감기간 중에 작성한 것인데 수신자는 문바우지만 하나의 엽서를 나누어 어머니, 아내, 며느리, 매제, 조카, 동생, 딸과 사위 각각에게 사연을 보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냈던 이러한 편지들 속에는 감옥내 일상을 전하고 안부와 건강을 챙기는 내용들이 많다. 초기에 문익환이 보냈던 편지들은 가족들을 향한 문익환의 감성이 담겨 있는 사적 내용으로 문익환의 남편, 아들, (시)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인간적 모습은 현재를 살고 있는 평범한 개인들도 공감할만한 일상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sup>30)</sup>

〈그림 2〉 문익환 옥중서신 (1979. 5.16)



출처 : 사단법인 통일의 집

성수, 영금에게

아무 배경도 기반도 없는 데서 생을 설계해 나간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안다. 계획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라. 주어진 오늘을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나마 충실히 살아가노라면 모든 일이 뜻하지 않은 보탬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 세대의 좌절을 너희 세대가 겪는다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나의 생을 생각해 봐라. 스무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서른 여덟에 목사가 되었으니 나의 생이 얼마나 좌절과 중단의 연속이었는데? 그리고 그 후로 오늘까지의 나의 생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거든. 내가 순간순간을 최선으로 산 것도 아닌데, 그 좌절들을 하느님은 몇 갑절씩 축복

30) 특히 문익환은 그를 둘러싼 가족 공동체의 거의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 아들, 형, 남편, 시아버지로서 문익환의 세심한 상대에 관한 관찰과 배려, 조언이 담겨 있다.

으로 보탬해 주셨거든. 조바심을 털어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면  
의외로 모든 일은 술술 풀릴 거다(문익환 1979. 5. 16).

세부 수신자로는 매우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되곤 했다. 문익환은 여러 가족은 물론이고 동료 신학자나 교수, 재야인사,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함께 했던 다양한 인물들에게 편지의 일부를 할애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념할 일이나 날짜에 맞추어 관련 인물들에게 보낸 편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장준하 서거 14주년을 지나며 문익환은 고인이 된 장준하의 부인을 세부 수신자로 포함하여 편지를 보냈다(문익환 1989. 8. 18).

때로 문익환의 편지는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작성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방북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다섯 번째 감옥에서 문익환은 수감기간 동안 변호사들에게도 여러 장의 편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재판을 마치고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보내고 통일에 관한 소신, 평양방문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문익환 1989. 9.23-10.22). 이는 방북 후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연행되어 수감되면서 충분한 의사 표현과 방북 성과를 설명할 길 없었던 문익환이 할 수 있었던 하나의 표현방법이었다. 또한 여섯 번째 감옥시절에 문익환은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논하는 편지들을 썼다. 기세춘과의 목자논의는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였지만 치열했던 그의 사고 과정의 증거이다.<sup>31)</sup> 또한 안병무 박사와의 민중신학을, 박순경 박사와의 통일신학을 주제로 하는 열면 토론을 편지를 매개로 이어나갔다. 마지막 감옥이 되었던 안동교도소에서 문익환은 박용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본인의 회고록을 일부 집필하기도 하였다.<sup>32)</sup>

31) 이 편지들 중에 기세춘 선생과 옥중서신으로 나누었던 대화는 후에 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문익환, 기세춘, 홍근수 공저, 『예수와 목자』, 일월서각, 1994

32) 안타깝게도 이 편지의 원본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문익환 전집에 수록된 편지의 내용이 남아있을 뿐이다.

…화해신학은 평화에 이르는 과정신학이요 실천신학이 되는 게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과정의 철학이요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 이론이라고 한다면, 화해신학은 평화에 이르는 민주적인 절차를 문제삼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이 땅에서 지리적·사회적으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세력들이 협상과 절충을 거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평화신학이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물론 협상의 주체로서 민중이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 되는 것이지만요 (문익환 1992. 11. 25)

문익환의 옥중 서신은 본인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견 교환 등 다양한 목적을 띠고 작성되었고 때로는 집필의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옥중서신은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명에게 보내진 경우가 많았고 그의 소식을 궁금해할 개인들 다수가 사실상의 공동 수신자였다. 이를 이 글에서는 대표수신자와 세부 수신자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문익환의 편지는 다양한 인물과 교류하는 통로였고 이를 통해 사상가로서 문익환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익환은 접견 및 집필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서신교환을 통해 감옥 내에서의 사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사상을 더 깊게 체계화시켰고 그 과정이 편지에 담겨있다. 특히, 세부 수신자들은 서신이 다루는 민주, 평화, 통일, 자유, 신학 등 내용적 주제와 관련된 인물들로서 아카이브 서비스가 서신에 대한 주제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되고 전거 등으로 관리 및 활용되어야 할 대상이다.

### 3) 사본의 생산과 유통

앞서 살펴본 “세부 수신자”라는 특징은 문익환 옥중서신에서 사본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부 수신자가 존재했기에

그들에게도 편지는 전달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문익환이 생각했던 공개 범위는 그보다 넓었다. 그는 편지를 “공개 가능한” 편지로서 작성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편지에도 나타나는데 “이 편지를 많은 사람이 보리라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있다.<sup>33)</sup> 이는 바로 수신인에게 전달된 편지가 공유를 위해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신이 여러 개인 및 단체들과 공유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서신이 세부 수신자를 갖고 있다는 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부 수신자들은 감옥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수신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서신을 전달받았다. 여기에는 봉합엽서의 대표 수신자였던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문익환이 보낸 편지가 집에 도착하면 아내인 박용길을 중심으로 가족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서신을 유통시켰다. 복사를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고 전체 혹은 일부를 다시 정서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편지의 사본은 상황에 따라 각지로 배포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원래의 옥중서신에 대한 다수의 복사본이 만들어졌고 다른 필체로 쓰여진 내용이 같거나 혹은 발췌된 형태로 필사된 사본도 만들어졌다. 아래 〈그림 3〉은 1982년 6월 10일에 문익환이 쓴 옥중서신 원본과 이를 아내 박용길이 다시 정서한 옥중서신 사본이다.<sup>34)</sup> 이렇게 생산된 사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여 문익환의 편지를 공급해하는 여러 지인과 단체들에 배포되었고 그의 근황과 뜻을 전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는 문익환의 가족들이 있었다. 문익환의 옥중서신이 모두 가족들에게 보내졌던 것은 행형법상 편지의 수신자가 가족으로 제한

---

33) 문익환과 박용길은 자신들이 주고 받았던 서신에 관해 여럿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어쩌면 민주화 운동으로 세상에 나서면서 이미 그는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계제”가 되어 버렸고 그에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아쉬웠던 마음은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4)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자료관의 온라인 서비스인 오픈 아카이브에는 개인들이 기증한 옥중서신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의 오른쪽에 있는 다시 쓴 옥중서신은 유통된 서신을 입수했던 개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에 기증한 것이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등록번호 523609, 기증자 이상철)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작용했지만 한편으로는 별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존재한다.<sup>35)</sup> 따라서 옥중서신의 유통은 문익환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집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된 것이 아니라 도착 이후의 재 활용 및 배포의 과정이 동반되곤 하였다는 점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 주로 가족들이 수행했던 이 역할을 고려한다면 편지의 “대표수신자”는 “서신 사본을 생성”하여 “편지를 유통”시킬 책임자라는 특별한 역할로 이해된다.

〈그림 3〉 1982. 6. 10. 옥중서신(왼쪽: 원본, 오른쪽: 박용길이 다시 쓴 사본)



출처 : 사단법인 통일의 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오른)

남겨진 편지들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에 관한 사례 중에서도 1990년 6월 25일자 서신의 경우는 독특하다. 동일 날짜가 적혀져 있는 서신은 모두 세 건이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종결되지 못한 편지, 또 하나는 세 장에

35) 문익환이 감옥에서 여러 개인들의 주소를 모두 기억하기 어려운 탓도 있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가족들의 배포자 역할이 필요했다.

걸쳐 쓰여졌으나 정작 부쳐지지 못한 듯 소인이 없는 편지이며 나머지 한 장이 소인이 찍혀져 있는 편지이다. 작성된 내용을 보았을 때 내용상 민족의 비극, 6월 25일을 맞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세 건의 편지들의 관계는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검열 등 감옥이라는 환경에 기인해 다양한 이형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신의 유통과 활용 특성에 대한 파악은 무엇보다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편지의 형태를 식별하고 구별하는데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 건의 원본이 다양한 배포용 사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검열 등 외부의 영향에 의해 남겨져 있는 원본 서신 간에도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옥중서신은 다양한 이형을 갖고 있고 또한 독특한 사본의 생성과 유통과정을 갖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이해 없이 남겨져 있는 사본과 필사본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징들은 옥중서신의 원본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본의 존재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이다.

#### 4) 작성 매체로서 봉합엽서

문익환의 옥중서신은 봉합엽서에 쓰여졌다. 봉합엽서란 우편엽서의 하나로 사연을 적은 쪽을 보이지 않게 겹쳐서 접으면 크기가 보통 엽서와 같이 되며 편지처럼 봉할 수 있다.<sup>36)</sup> 문익환이 1970년대 보냈던 우편도령<sup>37)</sup>이 그려진 봉합엽서의 경우 펼치면 가로 19센티, 세로 30센티의 크기로 그는 엽서의 주소를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면에 빼곡하게 소식을 담아 보내곤 했다. 그가 쓴 봉합엽서가 앞뒤 빈칸없이 깨알같은 글씨로 내용이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용자에서 허용된 서신 발송의 횟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문익환의 평전을 썼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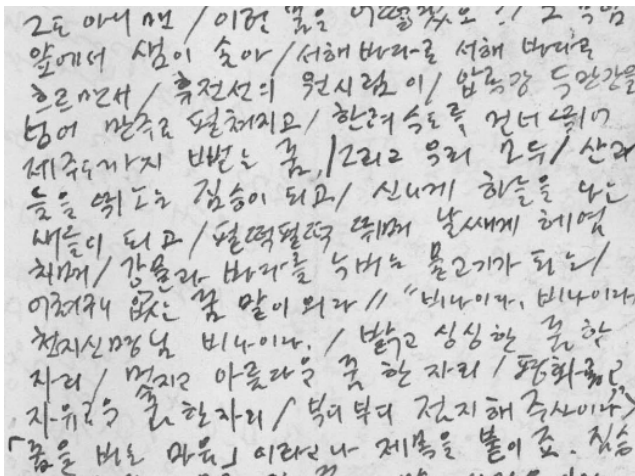
36)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한편, 1952년 5월 10일 부터 발행을 시작하였던 봉합엽서는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07-22호」에 따라 2007년 9월 3일 부로 폐지 되어서 이제는 과거의 역사로 남겨져 있다.

37) 봉합엽서에 들어있는 우표 디자인으로 도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김형수는 “단 한번의 기회에 좀 더 많은 사연을 담고 싶어 그의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만큼 작아졌다”고 적고 있다.

한 달에 봉합엽서 한 장만 보낼 수 있던 시절의 엽서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가 처음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작성했던 1977. 10. 14. 일자 옥중 서신(그림 4)도 이렇게 앞 뒷면에 빼곡이 적어 보낸 편지 중의 하나이다. 이 편지는 통일에 대한 의구심과 열망을 담아 지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가 담겨 있는데 하나의 엽서에 담긴 글자가 총 3,412자로 이는 원고지로 26.8장에 해당된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겨가며 겨우 봉합엽서 한 장에 담아내야 했던 간절함은 A4 한 장 남짓한 크기의 엽서에 이 많은 양의 글을 담게 했다. 허락된 지면이 제한된 탓에 봉합엽서 속에서는 띄어쓰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그가 감옥에서 썼던 시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띄어쓰기 대신에 ‘슬래시’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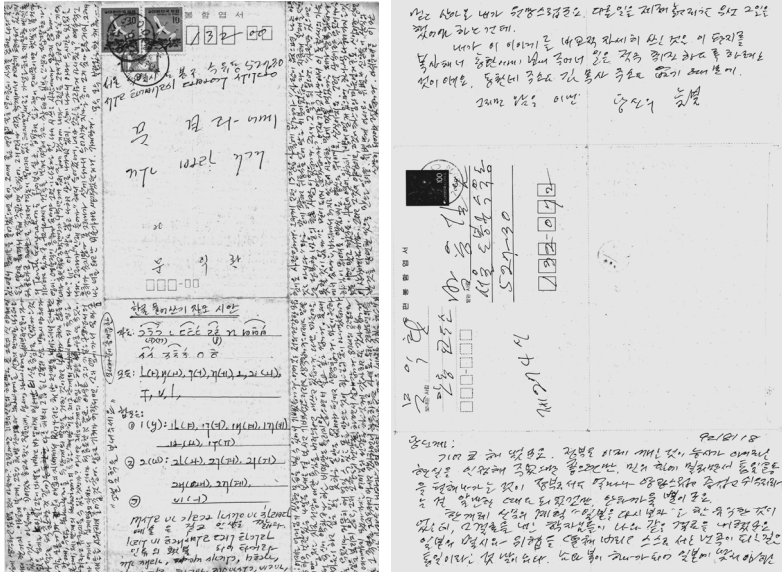
〈그림 4〉 1977. 10. 14 옥중서신 중 시, 『꿈을 비는 마음』 일부



출처 : 사단법인 통일의 집

특히 초반에 쓰여진 옥중서신들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봉합엽서 한 장에 개알 같은 손글씨로 작성되었는데 앞 뒷면 빈틈없이 작성되다보니 흐름을 찾기 어렵기도 하고 읽기 자체도 쉽지 않다. 이런 특징은 감옥 후반기로 가면서 차츰 완화되었다. 당국으로부터 집필 허가를 받으면서 문익환은 감옥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글쓰기를 할 수 있었고 시상이 떠오르면 노트에 적어 놓을 수 있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보낼 수 있었던 편지는 그 숫자도 점차 증가했는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속되었을 때 감옥에서 문익환은 무려 500여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 한편, 봉합엽서의 양식은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하였는데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쓸 수 있게 바뀌게 되면서 네 귀퉁이를 찾아가며 읽어야 했던 사연도 보다 읽기 편하게 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봉합엽서의 양식 변화 (왼쪽: 1982. 5. 2. 오른쪽: 1992. 8. 18)



출처 : 사단법인 통일의 집

## 4. 옥중서신의 온라인 서비스

### 1) 활용 현황과 시사점

문익환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은 해당 기간 중 문익환의 삶과 생각을 보여주는 유일하며 대표적인 기록이다. 지금까지 옥중서신의 활용은 제공 주체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는데 주로 문익환 가족과 기념사업을 주관했던 주체들은 다양한 간행물을 편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지원으로 디지털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사료관이 온라인 아카이브인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옥중서신의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38)</sup>

먼저 옥중서신은 문익환 생전부터 단행본으로 간행되거나 다양한 잡지 등 지면을 통해서도 널리 소개되었다. 이는 문익환 목사 사후 간행된 『문익환 전집』에서도 비중있게 포함되었는데 전집 중 옥중 서신이 3권이고 회고록 형식으로 기술된 편지와 기세춘 선생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묶어서 통일과 신학 주제 부분에 실고 있다.(<표 4> 참조)<sup>39)</sup> 또한 옥중서신은 일본어로 번역<sup>40)</sup>되기도 하였고 다양한 간행물은 옥중서신은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표 4> 문익환 전집 중 옥중서신 수록 현황

문익환 전집			단행본	비고
5권	통일 3	2부		회고록 형식으로 기술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

39) 문익환 전집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총 10권으로 간행되었다. 그 중 통일3권에 실린 옥중서신 내용은 문익환이 회고록 형식으로 기술한 것으로 당국에 압수되었다가 출옥 시 갖고 나온 것(92, 2, 12~4, 21)이다. 하지만 전집에 내용이 실린 것 외에 원본의 소재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40) 일본의 주부들이 취미활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번역 대상으로 선정한 '가장 주목되는 한국어 텍스트'가 '문익환과 박용길의 편지'였다(김형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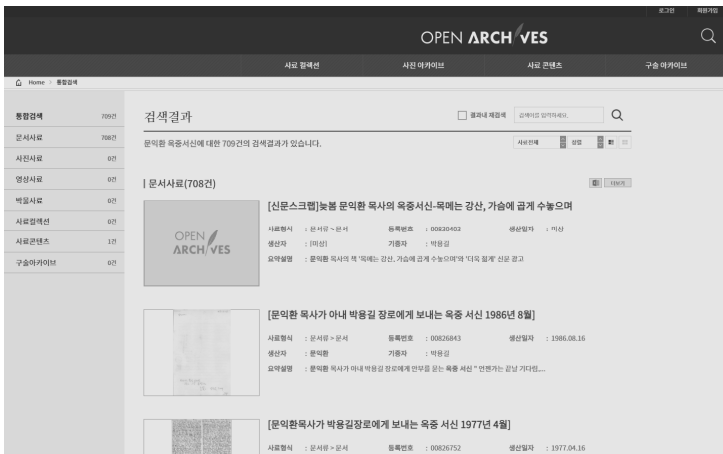
7권	옥중서신 1	1부	꿈이 오는 새벽녘(1984)	
		2부	통일을 비는 마음(1989)	어머니, 아들딸, 며느리,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
8권	옥중서신 2	1부	통일을 비는 마음(1989)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2부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1991)	
9권	옥중서신 3	1부	목매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놓으며(1994)	
		2부	더욱 짧게(1994)	
11권	신학2	2부		기세춘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하지만 활발했던 옥중서신 간행 활동에 비하면 옥중서신의 관리와 보존의 문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다양한 간행물은 계속적으로 생산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원사료의 일부를 다루고 있을 뿐이며 편집자에 의해 재구성된 것일 뿐이었다. 예를 들어 1979. 10. 14. 꿈을 비는 마음이 실려있는 서신의 경우 총 3,412자(원고지 약 26.8장 분량) 중 836글자(원고지 약 5.7장) 분량의 서신 내용이 간행본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 사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이어지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책을 간행하면서 편지들은 각종 작업을 위해 보존상자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간행 작업의 외중에 원사료의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 사료에 대한 훼손과 유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다. 실제로 문익환 옥중서신 중의 일부는 유실되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편지들은 생산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이미 노후화로 인해 곰팡이가 피거나 청색화가 진행된 것들, 부분적으로 구겨지고 훼손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활용의 요구를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보존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는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옥중서신의 목록과 디지털화된 사본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증자 박용길을 출처로 옥중서신을 건별로 관리하면서 통합검색을 통해 건별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어 옥중서신이 가진 집합적 맥락이 제

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sup>41)</sup>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는 건별로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간단한 배경설명과 함께 직접 서신 이미지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해당 편지 건에 관한 정보 및 내용만을 읽고 편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sup>42)</sup> 아래의 <그림 6>은 『오픈 아카이브』 통합검색에서 문익환 옥중 서신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로 키워드 검색창에 “문익환 옥중서신”을 넣어 검색하면 키워드가 포함된 다양한 유형의 결과 값이 약 709건 검색되어 나온다.<sup>43)</sup>

<그림 6> 『오픈아카이브』의 옥중서신 서비스 화면



- 41) 문익환 옥중서신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기증된 것은 아니며 위탁관리 상태이나 시스템 기능 미비 등의 이유로 웹상에서 기증된 사료와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다.
- 42)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분류체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료관의 경우 출범 초기부터 기록물 출처의 복잡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민주화운동기록물이 생산된 역사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최상위 관리 그룹을 적용하였다(전명혁 2004, 193-194). 이때 사용한 범주화의 원칙은 주제적 접근보다는 현존했던 운동단체(출처)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귀납적 관점에서 시도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출처에 따른 정리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전명혁 2003, 73-74). 이에 따라 옥중서신은 위탁 출처인 박용길을 중심으로 날짜 건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 43) 그 중 문서사료가 708건, 사료콘텐츠가 1건이다. 검색일자: 2020. 9. 02 <http://archives.kdemo.or.kr>

또한 옥중서신의 경우 필사본 사료로서 이용자가 직접 읽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sup>44)</sup>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이용자는 엄중한 감시 속에서 빈틈없이 깨알같은 손글씨로 썼던 봉합엽서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이러한 가독성의 문제는 『오픈 아카이브』가 쉽고 빠르게 디지털화된 편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가 내용을 읽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1977년 10월 14일자 “꿈을 비는 마음”이 적혀있는 옥중서신의 건별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sup>45)</sup> 이 건별 정보는 서신의 생산자, 생산일자, 형태, 분량, 기증자, 등록번호 그리고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설명 항목에 서술된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 적었던 시”는 바로 문익환의 대표시 중의 하나인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이다. 이 시는 1987년에 간행된 문익환의 시집, “꿈을 비는 마음”에 실려있는데 이 시는 한 장의 편지에 담겨 감옥으로부터 처음 세상으로 나왔다. 이러한 관계와 맥락은 이 서신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정보이지만 현재의 서비스를 통해서만 짐작하기 어렵다.

---

44) 『오픈 아카이브』 서비스는 이용자를 위해 주요 사건이나 시기별 분류를 상위에 두고 아래 해당 건을 구성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분류방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옥중서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이 건별로만 접근될 뿐이다. 사료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이 분류체계는 7개의 대표적 사건으로 중분류되어 있으며 개별 사료가 이 분류체계에 매칭되어 있다. 옥중서신 중 몇 개의 건은 사료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분류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료 컬렉션에 의한 접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 외에 사료관에서는 소장 기록건을 묶어서 ‘발행’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서신을 소개한 사례가 있다. 검색일자: 2020. 9. 1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334> “문익환 목사와 한글날”

45) 검색일자: 2020. 9. 02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26759>

〈그림 7〉 오픈아카이브에서 1977년 10월 14일자 옥중서신 건별 정보

<b>  사료정보</b>	
생산자 : 문익환	구분 : 문서
생산일자 : 1977.10.14	분량 : 2 페이지
형태 : 문서류	등록번호 : 00826759
기증자 : 박용길	
설명 : 문익환목사가 박용길장로에게 전주교도소에서 보내는 서신으로 민주원칙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하고 불신앙을 이기기 위한 시를 적음	

또한, 구체적인 서신내용과 작성날짜를 알고 검색한 이용자라도 쉽게 서신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정작 읽기가 어렵다면 서비스의 실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이러한 옥중서신 활용상황은 아날로그 편지의 디지털화 서비스가 건별 접근제공과 디지털화된 이미지 제공만으로도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2) 온라인 서비스의 과제

이러한 옥중서신의 특징과 활용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옥중 서신의 온라인 서비스의 과제는 크게 원 사료관리체계 강화와 서신 특성에 기반한 활용전략 마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정될 수 있다.

먼저, 옥중서신의 활용도 중요하나 실물로 존재하는 원 사료의 관리와 통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활용을 대비한 사료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다양한 옥중서신 간행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원 사료를 직접 열람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는 가공된 결과물 뿐 아니라 원 사료를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도 크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옥중서신을 소장하고 있는 사단법인 통일외의 집의 경우 오랜 기간 기록관리 인력이 부재하였고

소장사료의 1차적인 정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옥중서신도 부분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금부터라도 원 사료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소장목록과 실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활용과 접근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옥중서신이 갖고 있는 집합성에 근거한 정리와 기술체계의 보강이 필요하며 서신의 특성이 반영된 목록 및 검색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옥중서신이 갖고 있는 집합성, 세부 수신자의 존재, 서신의 다양한 이형, 재생산과 유통 과정의 특징, 그리고 봉합엽서가 갖는 매체적 특징 등은 옥중서신의 생산과 잔존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준다. 또한 생산자 문익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그가 감옥에 수감된 배경과 사건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약어,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 등에 관한 정보도 서신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정보가 된다. 다행히 통일의 집에는 소장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가족 등 내부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지식들이 소장기록 정리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후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옥중서신의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후화가 이미 진행 중인 편지 원본에 대해 장기적인 보존에 대비해 보존용품 교체, 탈산 등 물리적인 보존조치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본 사료에의 잦은 접근은 훼손과 유실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신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대체 사본을 완성하고 활용시 원본 대신에 대체 사본을 통한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sup>46)</sup>

---

46) 현재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편지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기 수행된 디지털화 사업의 결과물로 그 중 약 20% 정도는 이미지가 미구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글이 쓰여지는 과정 중에 통일의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머지 서신에 대한 스캔작업을 진행하였다.

네 번째로 제한된 공간에 깨알같이 쓰여진 글씨로 인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오픈 아카이브의 서비스 사례를 보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실효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미지 자체의 가독성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필체 등 가독성을 낮추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익환의 글씨체를 잘 읽어낼 수 있는 통일의 집 내부 인력들을 통해 내용의 텍스트화 등 가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옥중서신을 잘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온라인 활용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서신과 관련된 주제, 인물, 장소, 사건 등 다양한 친숙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신 내용의 텍스트화를 선행하여 데이터화된 서신을 토대로 좀 더 다양한 의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오래된 서신은 서신 자체와 남겨진 기록들만으로는 충분히 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많은 매뉴스크립트 기관은 인프라의 부족에 허덕이며 그 와중에 관리와 보존을 위한 이력을 파악하고 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은 결국은 사람의 기억일 뿐인 그런 상황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도 옥중 서신 및 관련된 다양한 문헌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나 무엇보다 옥중서신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관여했던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옥중서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맥락을 확보하는 활동은 시급하고 우선적이며 이와 함께 기록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애써 파악된 맥락을 토대로 의미있는 시도가 진전될 수 있다.

문익환의 옥중서신은 통일의 집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콜렉션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옥중서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들만 살펴보자면 우선 부인인 박용길 장로가 옥중으로 보냈던 “당신께”로 시작되는 삼천여통의 편지가 있다. 이 편지들은 통일의 집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sup>47)</sup> 그 외에도 두 분이 각기 혹은 함께 받았던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이 쓴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편지 형태 말고도 문익환의 옥중서신은 관련된 공적, 사적 영역의 기록들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재판기록, 수용기록과 함께 연결된다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 다양한 해석과 확장이 가능하다. 재판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 문익환의 모습과 문익환이 쓴 편지 속의 재판에 관한 개인적 심경과 견해는 서로 보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문익환 옥중서신에 적합한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신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아카이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왜 이 사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사료의 장기적 보존과 서비스라는 비용을 감당할 타당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대상으로서 옥중서신이 갖는 가치와 기록관리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미 통일의 집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서비스의 과제들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서비스에 있어 핵심인 편지의 텍스트화 작업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의 구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

47) 작년에 통일의 집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미래유산 사업에 선정되면서 박용길의 편지를 선별하여 편지집을 간행하였다(문익환 통일의 집 2019).

## 〈참고문헌〉

- 김형수. 2018. 『문익환 평전』. 파주: 다산책방.
- 김형수. 2018. 1화 무려 11년 3개월, 감옥 속 문익환. 『문익환 목사 가택 박물관 프로젝트』. 문익환 통일의 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서울: 선인.
- 문영금. 2019. 사랑의 기록, 처음 보낸 편지와 마지막 보낸 편지. 『사랑의 기록가』. 서울: 문익환 통일의 집. (비매품)
- 문익환. 1990. 『가슴으로 만난 평양』. 서울: 삼민사.
- 박태균. 2018. 김대중 연구 현황, 의제 및 향후 과제.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5-30.
- 오명진. 2017. 개인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 이문영, 한승현, 이해동 외. 2000. 『김대중 내란음모의 진실』. 서울: 문이당.
- 이유나. 2014. 『문익환의 삶과 분단극복론』. 서울: 선인.
- 이유나. 2019. 문익환의 민주화·통일실천의 변증법적 성찰. 늦봄 문익환 목사 방북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신대학교.
- 전명혁, 2003. 매뉴스크립트(Manuscript)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 제 13호, 189-204.
- 전명혁. 2004.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범주 및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사림』, (21), 69-90.
- 경향신문. 2018. 5. 27. “절차적 통일보다 우리 마음속 통일 앞서야” 검색일자: 2020. 10.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72058005&code=96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72058005&code=960205)

### 〈문서〉(사단법인 문익환 통일의 집 소장)

- 문익환. 옥중서신. 1977. 10. 14.
- 문익환. 옥중서신. 1979. 5. 16.
- 문익환. 옥중서신. 1979. 9. 1.
- 문익환. 옥중서신. 1979. 11. 16.
- 문익환. 옥중서신. 1980. 11. 22.
- 문익환. 옥중서신. 1981. 4. 6.
- 문익환. 옥중서신. 1982. 6. 10.
- 문익환. 옥중서신. 1986. 6. 9.
- 문익환. 옥중서신. 1986. 6. 20.
- 문익환. 옥중서신. 1986. 7. 30.
- 문익환. 옥중서신. 1989. 8. 18.

- 문익환. 옥중서신. 1989. 9. 23.  
문익환. 옥중서신. 1989. 10. 22.  
문익환. 옥중서신. 1990. 6. 25.

〈법령〉

- 「행정법」.  
「행정법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